지원동기:

인터넷이 등장한 후 우리생활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이 없는 시대로의 회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들이 점차 온라인에서 가능해지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IoT(사물인터넷)와 같은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시장이 커짐에 따라 O2O서비스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단지를 보고 전화로 하던 주문이 인터넷을 거쳐 이제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업체를 한 눈에 보고 심지어 할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쇼핑, 티켓예매부터 버스 위치 확인, 택시 잡기 등 오프라인 활동들이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지는 O2O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참여기회가 높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형태로 시장이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O2O플랫폼 서비스”라고 부르며 ‘배달의 민족’, ‘카카오 택시’, ‘호텔스 컴바인’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형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O2O플랫폼 서비스’는 현재 가장 두드러지는 트렌드입니다. ‘플랫폼’이라는 서비스가 주는 매력과 O2O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알게 된 후, 내가 낸 아이디어로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싶어졌고 가능하다면 꼭 도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혼자라는 어려움으로 용기내지 못하고 있을 때 ‘멋쟁이 사자처럼’을 알게 되었고 ‘멋쟁이 사자처럼’의 슬로건 “내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실현한다.”를 보며 도전의 기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전 ‘멋쟁이 사자처럼’의 궁극적 목표인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웹 서비스를 만들어 꿈을 실현시키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여 O2O플랫폼 서비스 형태에 제 아이디어를 더하여 나만의 IT서비스를 ‘멋쟁이 사자처럼’을 통해 세상에 내놓고 싶어졌습니다. 몰랐다면 도전을 포기하거나 주저했겠지만 ‘멋쟁이 사자처럼’을 알게 된 후 제 도전을 구체화 시킬 방법과 가능성이 조금은 나에게 찾아왔음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를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닌 직접 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만들고 싶은 IT서비스:

세상에 빈 공간은 무수히 많지만 나의 공간이 아니라서 또는 쉽게 쓸 수 없어서 생기는 공간활용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공간을 공유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술인·단체들 중 공연, 전시 공간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초보 창업가들은 머리 속에 사업 구상은 가득하지만 이를 풀어나갈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골머리를 썩기도 합니다. 이들은 화려한 전시관 아니라 카페 한 켠의 구석진 벽이라도 당장 자신의 그림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곳, 대형 프로젝트 빔과 벽 전체가 화이트보드로 이루어진 컨퍼런스 룸이 아니라 시멘트 가루 날리는 빈 건물이라도 테이블 하나 놓고 당장 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펼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다 “공간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간을 빌리기 위해선 상대방과의 직접대면 또는 복잡한 서류절차 등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발품 팔아가며 공간을 섭외하려 해도 누가 공간을 내어줄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빌려준다 한 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등 개인이 그때 그때마다 자신의 용도에 맞게 공간을 빌려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공간공유’에 대해 생각이 있는 공급자와 사용자가 모일 수 있는 ‘장(場)’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공가로 인해 건물로부터의 수입원이 없는 건물주, 카페 구석진 공간을 내버려 두기엔 아깝고 어떻게 꾸밀지 머리 아픈 카페 사장님과 같이 자신이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하는 공급자와 앞서 말한 무명예술가, 초보사업가와 같이 수시로, 다양한 용도로 공간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우리는 100% 활용되지 못하는 공간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간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당장은 ‘공간 활용’이라는 문제를 겪는 수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간공유를 실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연결해 주는 것이 1차 목표이지만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지금은 생각지도 못할 잠재적인 2차, 3차 서비스 형태를 발굴하면서 ‘공간공유’라는 개념을 나만의 방법으로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

1976년 4월 1일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 론 웨인이 잡스 부모님의 차고에서 컴퓨터 조립 키트인 '애플 I'을 만들며 애플이 시작되었으며, 1998년 7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란 두 스탠퍼드대 학생이 회사의 주소를 자신들의 첫 사무실인 차고주소를 쓰며 ‘구글’이란 회사를 만들기도 했다. 공간공유는 나의 남는 공간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오픈 함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내 차고에서 대한민국의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다면

//

자신이 참여했었던 프로젝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또한 그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두 달간의 인턴경험 중 회사의 연례 프로젝트의 주제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라는 기술의 기능점검을 맡았었습니다. RPA는 현대인의 업무형태의 대부분인 디지털 노동 중 단순/반복업무를 자동화 해주는 기술로 성장 가능성의 매력도가 매우 높으며 IoT, AI와 같은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사람과 같은 인지적 노동의 디지털화를 가능케 하는 발판이 되는 기술입니다.

프로젝트 초기 RPA사업의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의 RPA 솔루션을 비교해가며 적용 가능한 업종, 업무 프로세스, 활용범위 등 최대한 구체적, 체계적으로 기능점검을 수행했었습니다. 체계적인 기능점검이 전체적인 사업방향에 줄 수 있는 영향이 상당했기에 인턴이 수행하기엔 막중한 임무였으나 RPA라는 신기술을 접하는 재미와 프로젝트 일부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기능점검은 물론 기술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 심지어 기술이 적용 가능하다 생각되면 주저 없이 지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제 스스로가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며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RPA에 대한 제 능력을 인정받아 인턴 마지막 한 주간 RPA를 이용하여 타 부서에서 의뢰한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업무에 적용시켜 사람 대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어려웠지만 증명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수행하지 못했지만 프로젝트 수행 초기에 RPA라는 기술의 기능점검부터 마지막엔 실제 적용시키는 작업까지, 제가 수행하고 간 업무들이 프로젝트에 미약하지만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이었습니다.

1년간 멋사를 통해 자신이 얻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대학생활이 얼마 안 남은 요즘,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활동들을 못해본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입학 후 지금까지 학과 외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 동안 학점에만 목매던 제 자신에게 남은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인턴 경험을 해보며 진로에 관하여 ‘사업기획’분야에 제가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사업기획의 특징이 취업에만 국한되지 않기에 창업이란 새로운 도전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멋사를 접한 후 정리되어 지금까지 학점 따기 외 활동들에 부정적이었던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타학과 친구들, 더 나아가 타학교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경험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명확한 진로의 방향성을 얻어가고 싶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학교생활은 그저 집에서 학교를 벗어나지 않고 시험기간에 맞춰 공부를 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멋사를 통해 관심 있던 웹 개발에 대한 학습 및 탐구와 더불어 다양한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교 생활에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유의미한 무언가’를 얻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멋사에서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미약하지만 학교생활을 비롯한 여러 경험들에서 느꼈던 바를 남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사용했던 웹 서비스 중 가장 좋았던 것과 안 좋았던 것을 고르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YouTubeRed(이하 유튜브레드)는 유튜브에서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로써 기존 유튜브 이용 시 송출되는 광고영상이 없이 모든 영상이 재생되며 오프라인으로도 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데이터가 부족해 노래를 듣기 위하여 무료인 한 달만 사용하려 했으나 오히려 기존 이용하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지하고 해당 서비스 사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레드를 이용하면서 매력을 느꼈던 점은 광고가 없다는 점도 있겠지만 첫째로는 스트리밍 서비스 보다 더 많은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멜론, 지니, 엠넷 등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정식 음원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튜브레드를 이용하면 정식 음원은 물론, 뮤직비디오, 라이브 영상 심지어 정식 음원이 아니라 들을 수 없었던 노래들 까지도 기존 유튜브의 컨텐츠로 존재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오디오 형식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 형식은 유튜브뮤직 이라는 별도의 뮤직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제공이 되지만 유튜브레드를 이용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화면이 닫혀진 상태에서도 재생이 끊기지 않고 오디오만 흘러나오는 기능이 추가되어 영상을 보다가 메시지를 확인한다거나 자기 전 조용한 노래를 틀고 화면을 닫는 등의 활동에서도 재생에 영향 없이 오디오만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설정에서 기능 사용 유/무를 편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동영상 시청보다 데이터 사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 맘놓고 유튜브 컨텐츠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의 추천영상 기능이 노래를 들을 때도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에서 내가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즐겨봤던 영상의 기록을 통해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추천해 주는데 유튜브레드로 노래를 들을 때도 내가 굳이 노래를 저장하지 않더라도 내가 즐길 법한 노래들을 랜덤으로 재생해 줍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지금까지 몰랐던 가수들부터 제 취향의 좋은 노래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경기대학교 쿠티스(KUTIS)(이하 쿠티스)를 이용해본 경기대생이라면 이 서비스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 것입니다. 쿠티스는 경기대생들의 수강정보부터 웹메일 서비스 등 학교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내 개인활동들을 전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인트라넷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표 대학 명성이 무색하게 학교 전사 인트라넷인 쿠티스는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관계자 및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라 하기에는 유저인터페이스가 매우 불편합니다. 자동 로그인이 불가능해 수강신청과 같이 하루에도 수 차례 웹 사이트를 방문해야 할 때마다 일일이 로그인을 해야 하며 모호한 카테고리로 인하여 현재 4학년인 본인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수강 시간표를 확인하기 위해선 ‘수강정보’이하 ‘나의시간표’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하지만 ‘강의시간표’라는 불필요한 카테고리의 존재로 사용자로 하여금 의미를 헷갈리게 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줍니다.

또한 쿠티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위에서 언급한 카테고리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쿠티스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제시해주는 매뉴얼이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이 사용하는 전사적 인트라넷을 서비스하면서도 쿠티스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어떻게 이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습시키는 과정은 없으며 이는 학교가 웹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학과 사무실이나 관련처에 전화문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교내 업무를 웹 서비스를 통하여 대체하여 비용을 줄이고 내부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조건을 활용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웹 서비스 비용지출 및 교내 직원들의 업무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 되지 못하여 수업계획서와 같이 페이지가 긴 정보는 끝까지 읽을 수도 없으며 현재 학부 개편으로 인한 졸업요건진단이 개정되어 기존 학생들까지 졸업정보에 대한 서비스이용의 중단 등 통일되지 못한 서비스, 불편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 및 중단되는 교내 웹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관련처에 전화를 하게 되는 수고로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